

고구려 고분 명칭 번역 현황 및
중국어식 음역의 지정학적 함의
— 중국 소재 장천고분 및 통구고분을 중심으로 —

박 현 주
(이화여대)

1. 머리말

몇 년 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금을 받아 고구려 고분 벽화 관련 서적을 번역한 적이 있다. 번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문화소나 익숙하지 않은 각종 건축 및 회화 용어가 최대의 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어느 한 장도 쉬이 넘어가는 법이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었다. 바로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 중 명칭 자체에 지명이 들어간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많은 이들이 이들 고분의 현 소재(所在)에 기준해 중국어식 음역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적지 않은 자료에서 그러한 형태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와 감수자를 포함한 번역진은

중국어식으로 음역할 경우의 지정학적 함의¹⁾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음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자 역시 이 번역 프로젝트 이전에는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문제였고 다른 많은 동료 번역자들 또한 이 점을 간과하기 쉬우리라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영문명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확정했다(UNESCO 2012/12/05).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아리랑을 자국 유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터라 더욱 값진 쾌거였다(매일경제 2011/06/22). 주변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자국화시킴으로써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의 정책적 노력은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02년 처음 등재 신청했을 당시 유네스코는 ‘반려(deferral)’²⁾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동 결정에 이르게 된 이면에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무관하지 않았으리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신미아 2011: 84).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발달상뿐만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 또한 과시하려 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의 유형 및 무형 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는 이제 그 본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넘어 증가 일변도에 있는 지정학적 경쟁 및 분쟁의 주요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Ahn 2006, 2008). 이 과정에서 문화재 분야 번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문화재 번역 관련 연구는 주로 표기의 일관성 부재, 등가 문제, 오역 지적 및 대안 제시, 문화소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김도훈 2006; 최희섭 2008, 2010; 박순봉 외 2009; Lee 2010; 성기운 외 2011) 동 분야의 번역이 지니는 지정학적 함의까지 그 외연을 확장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

1) 지정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아래 3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각국에서 등재 신청한 유산에 대해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혹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각기 등재, 보류(referral), 반려 혹은 등재불가 판정을 내린다(참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는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 중 명칭 자체에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고분, 즉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을 중심으로 번역, 특히 음역 현황을 살펴보고, ‘장천’ 및 ‘통구’를 중국어식으로 음역할 경우 어떠한 지정학적 함의를 지니게 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내 정부기관에서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해 중국어식 음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정부기관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이러한 음역 방식이 지닐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고구려 고분의 중요성과 이 한국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2. 고구려 고분

고구려 고분군은 지난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북한 및 중국의 유산으로, 각기 「고구려 고분군(Complex of Koguryo Tombs)」과 「고대 왕국 고구려의 수도 및 고분(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이라는 명칭 하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최종 등재 결정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북한이 최초 단독 신청했을 당시에는 “신청 유산의 가치가 상당히 낮거나, 신청서 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반려 판정을 받았다(신미아 2011: 84). “그러나 북한이 제출한 신청서는 이미 수차례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으며, 고구려 벽화 고분의 가치 역시 충분히 인정받은 터라 이 결정은 예상 밖”이었다고 한다(84).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등재 방식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결국 양국은 각각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여 북한은 두 번의 시도 끝에, 중국은 한 번만에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다(85).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로 고구려 고분은 인류 유산으로서의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³⁾를 인정받았지만 현재 북한과

3)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1972)

중국 영토에 소재해 있어 다른 유산에 비해 한국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은 천문학, 복식사, 음악, 건축, 음식, 무용, 종교, 사상, 장례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 사전류에서 어렵지 않게 고구려 고분 관련 언급을 볼 수 있다는 데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⁴⁾ 고구려 고분의 중요성은 그와 관련한 학술 연구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전호태 1994).⁵⁾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고분 관련 번역에 대한 관심 및 오류 시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다른 지정학적 사안에 비해 부족한 듯하다. 툴레네프(Tyulenev 2010: 183)는 시스템 외부에 비춰진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번역이 이용된 경우 이를 번역의 ‘해독제(antidote)’ 역할이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 해독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 민간기관으로는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을 꼽을 수 있다.⁶⁾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직도 상에는 독도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고구려, 혹은 동북공정과 관련된 부서는 따로 없으며 업무 분장도를 볼 때 역사연구실이 관할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민간 외교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반크의 경우도 동해, 독도, 이순신 표기와 관련해서는 오류 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동북공정 혹은 고구려와 관련한 별도의 메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반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을 “국가 시작부터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이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속국 생활을” 해 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고구려를 그 역사 속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야욕에 대해서

4) 몇 가지 예로 『우리 문화 길라잡이(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 『한영 우리문화용어집(Glossary of Korean Culture)』, 『한국문화백과사전(A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등을 들 수 있다.

5) 전호태에 따르면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전인 1913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만도 고구려 고분 벽화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저서 1권, 논문 49편이 저술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저서 13권, 논문 101편이 발표되었다. 동 기간 한국에서는 저서 9권, 논문 94편, 북한에서는 저서 15권, 논문 99편을 내놓았다.

6) 물론 이들 기관은 해독제 역할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나 본 연구에서는 동 역할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는 다소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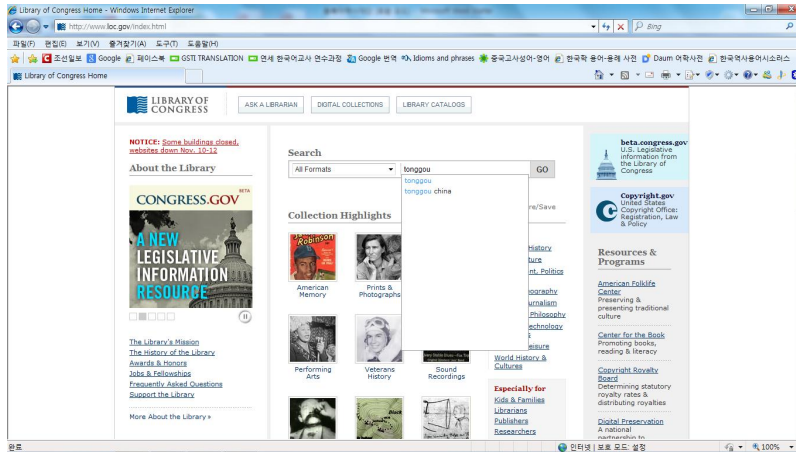
3. 중국어식 음역의 지정학적 함의

고구려 고분 명칭이 중국어식 음역으로 번역될 때 문제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준해 국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어 로마자 표기 혹은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쿰-라이샤워(McCune - Reischauer) 표기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표기법 상의 일관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차원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학적 함의를 지닌다.

장천 및 통구고분을 ‘Changchuan 000’, ‘Tonggou 000’로 중국어식 음역을 하게 되면 이들 문화 유산이 처음부터 중국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고구려는 중국 변방에 존재했던 한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게 될 소지를 남긴다. 즉,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협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⁷⁾ 이는 통구 및 장천고분이 현재 중국 영토에 소재하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통구고분을 고구려 유적이라 밝히고는 있으나 고구려가 한국의 고대 왕국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자료를 어떤 외국 학자가 접했다고 가정해 보자.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미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그는 해당 자료에 ‘Tonggou Tomb 00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검색창에 ‘tonggou’를 입력한다. 아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onggou china’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는 것을 보고 그의 머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통구고분-고구려-중국’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달리 말해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목적하는 바가 이 학자의 머리 속에 자연스럽게 각인되는 것이다.

7) 실제로 중국은 2002년 고구려 고분 “세계유산 신청서 첫머리에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세력이자 소수 민족의 하나’라고 규정”했다(신미아 2011: 92).

(그림 1) 미 의회도서관 화면



국내 언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백두산이나 압록강의 영문 명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압록·두만강을 중국 강이라고 표기하는 한심한 정부」라는 제하의 중앙일보 2007년 10월 23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영문표기를 각각 ‘Amnokgang’, ‘Dumangang’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외신 뉴스의 오류를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올바른 영문표기를 해외에 알리기보다는 중국식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운영하는 ‘Korea.net’ 사이트에서는 압록강을 ‘Yalu’, 두만강을 ‘Tumen’이라고 표기한 기사를 올렸다.....정부 기관에서 앞장서서 중국 측이 쓰는 이름과 표기를 사용할 경우 자칫 한반도의 대표적인 강인 압록강과 두만강마저 중국령(領), 중국의 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중앙일보 2007/10/23)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 동 사안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바로 다음 날인 10월 24일에도 「중국 ‘동북공정’ 비판하면서 우리 강 이름 중국식 표기」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고, 두만강은 한반도에서는 드물게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이다. 2000년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두 강의 영문 이름은 각각 ‘Amnokgang’, ‘Dumangang’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표기 준칙을 무시하고 중국 쪽 호칭 표기를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기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언론사들은 최근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을 고발하고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다룬 바 있다. 한쪽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강에 대해 중국식 호칭 표기를 관행적으로 써왔다. (중앙일보 2007/10/24)

일부 고구려 고분이 현재 중국 영토에 소재하고 있는 이유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동 유적의 관련 당사자가 아닌 제3국에서 고구려의 유산을 중국의 것으로 인식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1957년 동경에서는 『중국의 명화(中國の名畫: 原色版)』 시리즈의 일부로 『고구려의 벽화(高句麗の壁畫)』가 출판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서적의 표지에는 제목을 “Wall painting of Kaokouli-tombs”로 번역해 놓고 있다. ‘Kaokouli’는 중국에서 고구려를 부르는 호칭이다. 1958년 중국 정부가 「한어병음방안(漢語併音方案)」을 공포하기 이전이므로 웨이드-자일스(Wade-Giles)식 표기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중국의 현행 공식 로마자 표기 방식인 병음으로 읽으면 ‘gaogouli’가 된다.⁸⁾ 중국 역시 ‘고구려(高句麗)’를 어떤 발음으로 읽느냐의 문제가 지니는 함의를 인식한 듯 발음과 관련해 각 방송사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보다 1년 전 한·중 간의 논쟁이 한창일 무렵에 중국 당국은 방송사에 고구려라는 발음까지 고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문화일보> 2004. 8. 13). 고구려高句麗란 글자는 중국어로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가오취리[Gaojulǐ]’로 읽지만 고대국가인 고구려를 가리킬

8) 홍콩과학기술대학교(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도서관 ‘웨이드-자일스 ↔ 병음 변환표(Conversion Tables: Pinyin to Wade-Giles / Wade-Giles to Pinyin)’ 참조.

(<http://library.ust.hk/guides/opac/conversion-tables.html#wl>).

때에는 유독 ‘가오거우리[*Gaogouli*]’라 발음한다. 조선시대만해도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리’로도 불렸으므로 우리 음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의식한 중국은 중국음에 가까운 ‘가오취리’로 발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때는 다행히 중국음이 아닌 한국음을 사용하여 ‘Koguryo’라 표기했다. 무의식 중에 한국사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리하여 중국에서는 지금 세 가지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송기호 2007: 248)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구려 관련 유적 번역 시 음역이 지니는 지정학적 함의를 방증하며 따라서 우리가 ‘Changchuan’과 ‘Tonggou’로 번역했을 때 의도치 않게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은 서기 전후 무렵 졸본 지방에서 일어나 668년까지 오늘날의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지방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고구려라는 맥락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번역 시에도 한국의 고대 왕국 고구려의 관점에서 이들 고분 명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인 최초로 한국 서지학을 연구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은 1898년 자신의 논문 「고구려 왕국의 한문(漢文) 비석(Stele Chinoise du Royaume de Ko Kou Rye)」에서 광개토태왕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고유명사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명과 인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한국 발음을 사용하였다”⁹⁾고 밝히고 있다(서길수 2007: 251 재인용). 일례로 ‘夫餘’는 ‘부여(Pou ye)’로, ‘國內城’은 ‘국내성(Kouk nǎi syeng)’으로 음역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어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꾸랑이 중국어식 음역을 피한 것은 탈고구려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음역 혹은 보다 광범위하게는 음운론적 변화와 탈맥락화 간의 관계를 언급한 선행 연구로는 우선 티모츠코(Tymoczko 1990: 52)를 들 수 있다. 그는 제프리(Geoffrey of Monmouth)의 『브리튼 통치사(The History of the Kings of Britain)』에 나타난 ‘탈켈트화(de-Celticized)’ 양상의 한 예로 목표 독자층인 노르만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해 원천 텍스트의 ‘뮈르딘(Myrrdin)’을 ‘메를리누스

9)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J'emploie partout les prononciations coréennes, puisqu'il s'agit surtout de localités et de personnages coréens.

(Merlinus)'로 바꾼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탕(Tang 2011: 529)은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이백의 「장간행(長干行)」을 영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중국 고유의 문화소를 탈중국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품에 등장하는 중국 지명 '長干(Changgan)'과 'Changfengsha'를 'Chokan'과 'Cho-fu-sa'라고 "음성학적 조작(phonetic manipulation)" 및 일본식 로마자로 표기한 예를 들고 있다.

음역과 지정학적 맥락 간의 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킨 또 다른 연구로는 한국 문학 작품에 투영된 '외국'의 이미지를 고찰한 프랭클(Frankl 2008: 126-128)의 연구가 있다. 그는 원래 영문으로 작성했던 박사학위 논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번역/음역과 외국성의 인식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한국어로 번역 및 출판하는 과정에서 부연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듯 번역본에서는 세 쪽의 지면을 추가로 할애해 이 점을 서술하고 있다.

4. 장천고분 및 통구고분의 명칭 번역 현황

4.1 번역 현황

번역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 길림성 집안현(吉林省 輯安縣)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중 그 명칭에 '장천'과 '통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고분은 다수 존재하며 그 명칭을 부르는 방식 및 그에 대한 영어 번역은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1] 고구려 고분 명칭 유형¹⁰⁾

명칭 유형	국문 명칭 예	영어 번역 예
지명+일련번호	장천1호분	지명의 음역+의미역+일련번호 (Jangcheon Tomb No. 1)
지명+[조성 방식]+일련번호	장천2호분	지명의 음역+의미역+일련번호 (Changchuan Earthed-Closed Tomb No. 2)
지명+해당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 명칭	통구사신총	지명의 음역+의미역 (Tonggu Tomb of Four Directional Deities)

따라서 영어 번역은 ‘Jangcheon/Tonggu Tomb OOO’, ‘Jangcheon/Tonggu Tomb of OOO’, ‘Jangcheon/Tonggu OOO Tomb’, 세 가지 형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 대상은 번역된 영문 명칭의 앞부분, 즉 ‘지명의 음역’으로 한정하는바 상기 [표1]의 유형과 상관없이 각기 일괄적으로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보고서, 책자,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국내외 (준)정부기구 발간물, 국내외 학술지, 한국 문화 소개 사전류 및 고고학 분야의 전문 서적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표2]와 같다.

10) 본 연구는 고분 명칭의 영어 번역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문 명칭의 ‘분(墳)’, ‘무덤’, ‘총(塚)’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닷컴의 「고분벽화 라이브러리」에 등재된 명칭을 기준으로 상기 표에서는 ‘~분’, ‘~총’을 대표적 예로 들고 있고, 위 표에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구사신총’은 ‘통구사신묘’, ‘통구사신무덤’을 모두 아우르는 식이다. 또한 ‘[조성 방식]의 대괄호([])’는 번역 과정에서 역자의 선호에 따라 추가 정보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2] 분석 대상 자료 및 검색 데이터베이스¹¹⁾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국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해외	미의회도서관, Google Books 검색
(준) 정부 기구 자료	국내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문화재청
	해외	유네스코 보고서, 고구려 고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북한측, 중국측), 산서성 운서지구박물관 발굴 보고서 등
서적류	전문 서적	<i>The Dreams of the Living and Hopes of the Dead,</i> <i>COWA Surveys and Bibliographies: Far East,</i> <i>Early Japanese art: the great tombs and treasures</i>
	한국 문화 사전	<i>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i> <i>Glossary of Korean Culture,</i> <i>A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i>
학술 논문		다수 (EBSCOhost, RISS, KISS 검색)

상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의 명칭 번역 중 음역 부분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1)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번역’ 텍스트라 할 수 없지만 한국 문화재를 다루며 그에 따라 집필 당시부터 불가피하게 문화재 명칭의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자세한 분석 대상 자료 목록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3) 장천, 통구고분 명칭 번역 유형 - 지명 음역에 따른 분류¹²⁾

표기 유형		장천고분	통구고분
국어식 음역	국어 로마자	Jangcheon [Jangchon]	Tonggu [Tongku]
	매쿰-라이샤워	Changch'ôn [Changch'on, Changchon]	T'onggu
중국어식 음역	한어 병음	Changchuan	Tonggou
	웨이드-자일스	Ch'angch'uan [Ch'angchuan]	T'ung-kou
병기	국어, 중국어식 로마자 표기 병기	Changchuan (Changch'on) OOO	Tonggou OOO; T'ong'gu OOO

첫 번째 유형, 즉 ‘장천’과 ‘통구’가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각기 국어 로마자 내지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음역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국내 자료에서도 중국어식 음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이들 고분이 현재 지리적으로 중국 영토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중국 발음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장천’, ‘통구’가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단독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결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 명칭에 대해 논하는 맥락 속에서 이들 두 단어는 지명이 아닌 고분 명칭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하며 따라서 상기 전제의 타당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한 바 있다.

12) 대괄호([]) 안은 각 유형의 변이형이다. 역자 혹은 저자가 해당 표기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해당 표기법 자체가 수차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변이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국의 로마자 표기법 (정경일 2012: 183-206)

한국	국어 로마자	1948년 이래 4차례 개정. 현행 표기법은 2000년 7월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매쿰-라이샤워	193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매쿰(G. M. McCune)교수와 하버드 대학교의 라이샤워(E. O. Reischauer) 교수가 공동 제안. 미 의회도서관은 동 표기법을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ALA-LC Romnization Table: Korean - Library of Congress')
중국	한어 병음	1958년 중국 정부가 국가적 표준 표기법으로 「한어병음방안」을 공포.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중국의 공식적 로마자표기 방안
	웨이드-자일스	1912년 제안된 후 「한어병음방안」 공포 전까지 대표적 표기법으로 인식

다음 절에서는 국내 정부 기관 발행 자료 중 중국어식 음역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기관 자료 및 출판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식 견해 및 관점을 반영한다고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를 별도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4.2 정부 기관 자료에 나타난 중국어식 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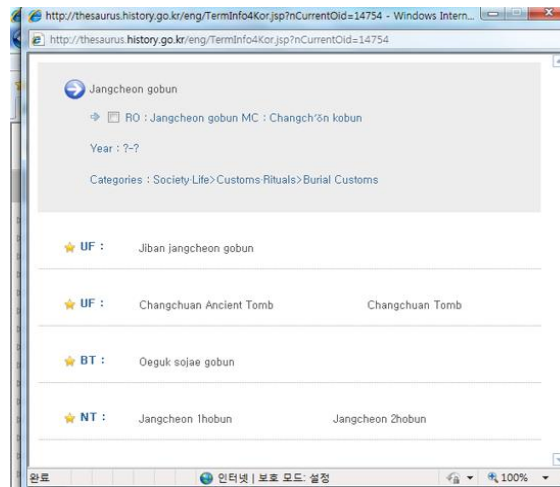
정부 기관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 개정된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즉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원칙에 준해 음역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온·오프라인 발행물에서 모두 중국어식 음역을 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Korean History Thesaurus)」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Glossary of Korean Studies)」 모두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에 대해 모두 중국어식 음역인 ‘Changchuan OOO’과 ‘Tonggou OOO’를 게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 검색창에 ‘장천’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동 단어를 포함한 총 8가지(‘장천1호분’, ‘장천2호분’, ‘장천고분’, ‘장천리도요지’, ‘장천리유적’, ‘장천용’, ‘장흥장천재’, ‘증장천왕’)의 표제어가 화면에 출력된다. 이중 장천고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표제어는 ‘장천1호분’, ‘장천2호분’, ‘장천고분’ 총 3가지다. 각 표제어를 클릭해 하위 화면으로 들어가면 화살표로 표시된 표제어 우측에 ‘영문’ 버튼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해당 한글 표제어에 상응하는 영문 표제어 및 관련 용어를 보여주는 팝업 창이 뜬다([그림2] 참조). 화면 상단부터 살펴보면 팝업 창은 영문 표제어, 로마자(RC) 및 매켄-라이샤워(MC) 표기, 연도(Year), 분류(Categories), 유의어에 해당하는 UF(Use for Synonym), BT(Broader Terms), NT(Narrower Terms)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 항목이 ‘고분’, ‘1호분’, ‘2호분’까지 모두 음역하고 있어 적절한 번역안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나면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유의어인 ‘UF’가 유일하다. 따라서 각 표제어와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번역안을 정리해 보면 [표4]

와 같다. 여러 가지 용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어식 음역인 ‘Changchuan OOO’로 번역하라고 안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2)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팝업 창 (2012/12/14 접속)



[표4]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검색 결과

한글 표제어	영문 표제어	번역안 (UF)
장천1호분	Jangcheon 1hobun	Changchuan Ancient Tomb No. 1, Ch'angchuan Tomb No.1
장천2호분	Jangcheon 2hobun	Changchuan Ancient Tomb No. 2
장천고분	Jangcheon gobun	Changchuan Ancient Tomb, Changchuan Tomb

또 다른 대표적 한국학 관련 정부 운영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http://www.aks.ac.kr/glossary/>)에서 ‘장천’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장천1호분’과 ‘장천고분’, 2가지 결과가 도출되며, ‘통구’를 검색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해 3가지 표제어(‘통구’, ‘통구12호분’, ‘통구사신총’)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표제어에 대한 하위 화면으로 들어가 세부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3]과 같으며 출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역사용어 시소

러스」와 차별화된다.¹³⁾ 그러나 이 용례사전 역시 전체를 다 음역한 항목(영문 표제어, ‘문화관광부 지정표기’, ‘M/R표기’)을 제외하면 ‘영문 의미’ 항목만이 적절한 번역인 것처럼 인식된다. 이에 따라 각 표제어별 번역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5]와 같으며 실질적으로는 중국어식 음역에 준한 번역(‘Changchuan 000’과 ‘Tonggou 000’)만을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듯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3)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검색 결과(2012/12/14 접속)

장천고분(長川古墳), Jangcheon Gobun

한글	한자	문화관광부 지정표기	M/R표기	시대
장천고분	長川古墳	Jangcheon Gobun	Changch'ŏn Kobun	삼국

* 영문 의미 1: Changchuan Tomb
 * 출전: Ah-Rim Park, Tomb of the Dancers, Koguryŏ Art in East Asian Funerary Art,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2,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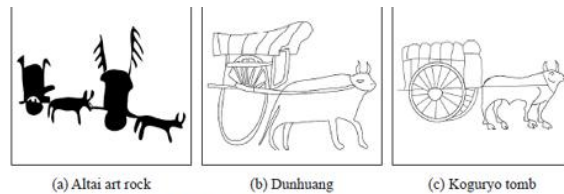
(표5)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검색 결과

한글 표제어	영문 표제어	영어 번역
장천고분	Jangcheon Gobun	Changchuan Tomb
장천1호분	Jangcheon Ilhobun	Changchuan Tomb No.1
통구12호분	Tonggu Sibihobun	Tonggou Tomb No.12
통구사신총	Tonggu sasin-chong	Tomb of the Four Deities

정부 출판물의 경우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영문 학술지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를 일례로 들 수 있다. 2011년도 여름호에 게재된 ‘A New Perspective on the Analysis of Koguryo Wall Paintings Iconography’라는 제하의 논문 134쪽 각주를 보면 비록 한글 이름을 대괄호 안에 병기하고는 있으나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을 모두 중국어식(Changchuan no. 1과 Tonggou no.

13)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와는 달리 용례까지 보여줌으로써 해당 표제어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현재 2009년과 비교해 표제어에 대한 ‘정의’는 새로 추가된 반면, 동 사전의 차별화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용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라지고 없다(양창진 2009 <그림 3> 참조).

12)으로만 음역하고 있다.



Pic. 3. Some Examples of Carts Images

The cart was undoubtedly a main symbol of wealth in ancient societies as well as that of hunting;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² We find it in the following tombs: the Dancers tomb [무용총], in Anak no.1[안악1호묘], Deogheung-ri [덕흥리묘], Yagsu-ri [약수리묘], Gamsin [감신총]; the Big Tomb of Yonggang [용강대묘], Dongam-ri [동암리무덤], Daean-ri no. 1 [대안리1호묘]; Hunting Tomb [사냥총], Changchuan no. 1[장천1호묘]; Three Chambers Tomb [삼실총], Maxianguo no. 1[마신구1호묘], Tonggou no. 12 [통구12호무덤].

(그림4)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게재 논문

비록 외국 저자가 작성한 글이기는 하나 동북아역사재단 발행 학술지이므로 동 기관의 편집 방침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해당 학술지의 투고 요령 안내(‘Submission’)를 보면 편집위원회에 의한 원고 편집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Manuscripts may be edi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s are the final arbiters.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홈페이지, 2012/12/18 접속)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하는 동 학술지는 중국어식 음역을 허용하거나, 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다른 편집 방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정부 운영 온라인 DB - 중국어식 음역의 공식 명칭화?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이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번역어는 ‘Changchuan Tomb’ 및 ‘Tonggou Tomb’이라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므로 이용자들은 이들 번역을 그대로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이들 데이터베이스 명칭에 포함된 ‘시소러스’¹⁴⁾와 ‘사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당연히 오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연구사 류주희(2004b: 220)에 따르면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오용어(誤用語) 또한 등가관계¹⁵⁾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씨조선(李氏朝鮮)이나 민비(閔妃)와 같은 용어……들을 유의어로 처리하여 조선(朝鮮)이나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올바른 역사용어”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어의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영문의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팝업 창에 뜨는 영문 표제어 자체가 영문 번역으로서 무의미하며 등가관계를 나타내는 ‘UF’만이 유의미한 항목이므로 별도로 인식 정립을 위한 ‘오용어’ 사례를 같이 게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4) 류주희 (2004 b: 209-210)는 ‘시소러스’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보 검색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소러스는 ‘후조합 색인과 검색을 위해 설계된 자연언어 용어들의 통제 어휘집’, ‘통제된 색인 언어의 어휘집이며, 개념간의 특정관계를 형식적으로 조직화하여 명시한 것’, ‘상위 및 하위 개념 사이의 전후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조직, 통제된 색인어의 어휘집’,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미적, 종속적으로 관련된 용어들의 통제된 동적인 어휘집’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곧 시소러스는 용어를 모아둔 어휘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어사전에 는 시소러스를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배열한, 유의어나 동의어의 사전 또는 정보 검색을 위하여 컴퓨터에 기억된 용어 사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15)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는 용어간 유사성을 말하는 ‘UF (Use for, Synonym)’ 항목이 ‘등가관계’를 나타낸다.

더욱이 이들 사이트의 운영 기관들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표준화된 용어이거나 혹은 “번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임을 밝히고 있다. 류주희(2004b: 208)는 다양한 역사적 시각과 인식 차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가 구축되었다고 적고 있다.

한국 역사 분야 시소러스 구축은 200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행되었다……하나의 사건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한국역사용어는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 연구자들이 역사를 보는 시각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는 한국역사용어를 표준화하여 한국 역사 정보화의 매개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작된 것이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의 구축이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은 2006년 12월 작성된 ‘소개의 글’에서도 동 사이트가 영문 용어 표준화 노력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문화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번역과 해외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학 용어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학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학 영문 용어를 표준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14,000여개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 연구자 및 번역가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사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소개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기관 운영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성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며 신뢰해도 될 것이라는 이용자의 기대지평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종의 비평적 ‘결텍스트(paratexts)’(Genette, 1997)로 간주할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온 이용자 의견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¹⁶⁾

이름	장은화
제목	불교관련 내용 오류
<p>저는 한국불교를 영어로 저술하고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많이 유용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관련 자료는 오류가 많습니다. 영어로 한 시간 정도 불교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내용을 발견했지요. 검토요망합니다.</p>	
이름	양항진
제목	답변입니다.
<p>불교관련 영문 용례가 이상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후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례 사전의 취지는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번역되어 책으로 보급된 자료들에서 용어의 번역 사례를 추출하여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용어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나라의 번역 수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용어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p>	

그런데 상기 인용한 운영자 답변 내용 중 특히 “이 용례 사전의 취지는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번역되어 책으로 보급된 자료들에서 용어의 번역 사례를 추출하여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사이트의 활용과 관련해 이용자의 기대지평과 운영자의 기대지평 간에 격차가 존재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용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니 이용자 스스로 적절치 못한 번역을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번역가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사전”을 지향한다는 동 웹사이트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시소러스 내지 용례사전이라는 특성 상 중국어식 음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Jangcheon Tomb’과 ‘Tonggu Tomb’ 등 국어식 음역을 한 용례 내지 대역도 함께 제시해 주는 안이 될 것이다. “영문 용어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한글 표제어에 대부분 하나의 영문 용어를 대표어로 제공함으로써 영문 대역어가 완전히 공인된 것처럼 인식될 수

16) 2012년 12월 14일 접속 당시 동 ‘게시판’에는 2006년 4월 18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작성된 질문 및 답변이 총 20건 게재되어 있었으며 각 건에 대한 조회수는 456~1583번 사이였다. 비록 절대적 수치만으로 보면 전체 게재 건수가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이들 의견 한 건 한 건이 웹사이트 운영에 의미를 지니므로 적은 건수라 해도 이용자 및 운영자의 기대지평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있는 오해의 소지”를 지니기 때문이다(양창진 2009). 아니면 최소한, 이용자가 동 사전에 혹시나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오역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용례 사전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시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그 좋은 예로 제시할 수 있다. 동 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법령한영사전은 검색 결과 하단에 “법령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용어한영사전은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자료 활용에 있어 이용자가 한번 더 검수 과정을 거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화면



6. 맺음말

본 연구는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 중 명칭 자체에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고분, 즉 장천고분과 통구고분의 번역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어식으로 음역할 경우 어떠한 지정학적 함의를 지니게 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번역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어 로마자, 매쿤-라이샤워, 한어 병음, 웨이드-자일스 등 여러 가지 표기 방식으로 음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오

래된 자료이거나 해외에서 발간된 자료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도 중국어식 음역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하게는 역사학계에서 최고의 공신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두 기관, 즉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전’ 혹은 ‘시소러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사실상 중국어식 음역을 유일한 번역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장천’ 및 ‘통구’를 중국어식으로 음역하는 것은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요한 지정학적 함의를 지닌다. 즉, 의도치 않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문화유산과 관련된 저작물 혹은 번역물을 생산하는 모든 당사자가 음역과 관련해 ‘의식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아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현 국제 상황에서 번역은 “침예한 논쟁의 도구”(양창진 2012)로 그 중요성을 더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저술이 후대 학문적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계에서도 환기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고려된다. 또한 번역자 자신도 원천 텍스트를 다른 문화 속으로 변환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이로서 그 변환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바스넷 Bassnett 1980).¹⁷⁾ 물론 특정 국가의 이해나 이데올로기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주장이 사용됨을 상기할 때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지정학적 의미’가 상통함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고구려 고분 명칭 번역 사례를 들어 국어식 음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번역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번역을 함에 있어 이데올로기나 지정학적 함의까지도 두루 고려하여야 함을 학계 및 실무 전문가 사이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이지만 동 주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추후 많은 후속 연구가

17) 이데올로기와 번역, 그리고 번역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희진(2008)을 참조할 수 있다.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31-51.
- 도희진 (2008) 「중환 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9(3): 27-45.
- 류주희 (2004a) 「문화콘텐츠 기반으로서의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인문콘텐츠』 9(4): 199-211.
- _____ (2004b)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의 구축 방법론」, 『사학연구』 제73호: 207-226.
- 매일경제(2011/06/22) 「‘아리랑’ 중국 무형문화재 지정…동북공정 어디까지?」.
- 박순봉, 최희섭 (2009) 「중원 고구려비 영문안내판의 문법적 오류」, 『번역학연구』 10(3): 99-119.
- 서길수 (2007) 『한말 유럽 학자의 고구려 연구』, 서울: 여유당.
- 성기운, 최희섭 (2011) 「국보304호 ‘여수 진남관’ 안내판의 번역오류」, 『통번역학연구』 13(1): 87-106.
- 송기호 (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서울: 솔.
-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제 40호: 83-107.
- 양창진 (2009) 「한국학 자료 번역 도구로서의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DB 구축 연구-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 구축 사례와 그 발전 방향」, 『인문콘텐츠』 제16호: 307-335.
- _____ (2012) 「한국고전영문명칭DB 구축 및 공유 방안 연구」, 『통번역학연구』 16(1): 87-107.
- 전호태 (1994)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문헌분류와 검토」, 『역사와 현실』 제 12호: 256-282.
- 정경일 (2012) 『국어 로마자표기의 오늘과 내일』, 서울: 역락.

- 최희섭 (2008)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 『번역학연구』 9(1): 259-281.
- _____ (2010)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국보 명칭 영문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1(1): 271-291.
- 중앙일보(2007/10/23) 「압록·두만강을 중국 강이라고 표기하는 한심한 정부」.
- _____ (2007/10/ 24) 「중국 ‘동북공정’ 비판하면서 우리강 이름 중국식 표기」.
- 小野勝年 編 (1957) 『中國の名畫: 高句麗の壁畫』, 東京: 平凡社.
- Ahn, Yon-son (2006) ‘Competing Nationalisms: The mobilization of history and archaeology in the Korea-China wars over Koguryo/Gaogouli,’ *Japan Focus*, <http://www.japanfocus.org/-Yonson-Ahn/1837>.
- _____ (2008) ‘The Contested Heritage of Koguryo/Gaogouli and China-Korea Conflict,’ *Japan Focus*, <http://www.japanfocus.org/-Yonson-Ahn/2631>.
- Bassnett, Susan (1980)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rankl, John (2003) “Our Country”: *Changing Images of the Foreign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PhD dissertation, Harvard U.
- _____ (2008) 『한국문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Images of “The Foreign”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서울: 소명출판.
- Genette, Gerard (1997) transl. by Jane E. Lewin,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New York: Cambridge UP.
- Lee, Seung-jae (2010) ‘Cultural Translation: A Case Study of Kyeongbokgung Palace,’ 『번역학연구』 11(1): 311-337.
- Tang, Jun (2011) ‘Ezra Pound’s *The River Merchant’s Wife*: Representations of a Decontextualized Chineseness’, *Meta* 56(3): 526-537.
- Tymoczko, Maria (1990) ‘Translation in Oral Tradition as a Touchstone for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Susan Bassnett & Andre Lefevre (eds.)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 New York: Cassell.

Tyulenev, Sergey (2010) 'Translation in Intersystemic Interaction: A Case Study of Eighteenth-Century Russia',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23(1): 165-189.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_____ (2012/12/05) 'Sixteen new elements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sixteen_new_elements_inscribed_on_unescos_representative_list_of_the_intangible_cultural_heritage_of_humanity/.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roman_0101.jsp.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idx=31&styp=1>.

동북아역사재단 영문학술지(*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http://www.historyfoundation.or.kr/?bmode=view&search=&s_word=&mode=&board=&menulev=&didx=&bname=&sidx=239&page=1&bidx=100&styp=2.

미의회도서관 <http://www.loc.gov/index.html>.

미의회도서관 '로마자 표기법(ALA-LC Romanization Table: Korean - 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catdir/cpso/romanization/korean.pdf>.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heritage/wh/reg_process.asp.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id=CP_THE006&cp_code=cp0426.

Google Books <http://books.google.com>.

홍콩과학기술대학교(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도서관 <http://library.ust.hk/guides/opac/conversion-tables.html#wl>.

〈부록: 분석 자료〉

- 국립국어연구원 (2002) 『우리 문화 길라잡이(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 서울: 학교재.
- 동북아역사재단 (2007) *Koguryo: The Origin of Korean Power & Pride*.
- 배승문 (2010) 「장천1호분 5현악기 복원 연구-집안 ‘장천1호분 고분벽화’에 나타난 도상을 대상으로」, 『한국음악사학회』 제44권: 93-137.
- 서청수 편(2004) 『한국문화백과사전(A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서울: 한세본.
- 송기중 편 (2001) 『한영 우리문화용어집(Glossary of Korean Culture)』, 서울: 지문당.
- 안상복 (2003) 「고구려의 괴뢰자(광대)와 장천1호분 앞방 왼쪽 벽 벽화」, 『한국민속학회』 제37집: 129-155.
- 이정효 (2007) 『장천1호분 예불도벽화의 불상양식 고찰』, 부산: 동아대학교 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Benedittis, Andrea De (2011) ‘A New Perspective on the Analysis of Koguryo Wall Paintings Iconography’,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8(1): 123-145.
- Council for Old World Archaeology (1969) *COWA Surveys and Bibliographies: Far East*.
- Culture Bureau and Museum of Yuncheng Prefecture, Shanxi Province, *Summary Minutes of the Excavation of Changchuan Earthen-Closed Tomb No.2 in Ji'an County, Jilin Province*.
- Jeon, Ho-tae (2007) *The Dreams of the Living and Hopes of the Dead: Goguryeo Tomb Murals*, Seoul: Seoul National UP.
- Kidder, Jonathan Edward (1964), *Early Japanese art: the great tombs and treasures*, Princeton NJ: Van Nostrand.

- Kim, Lena (ed.) (Jun. 2004) *Koguryo Tomb Murals*, Seoul: ICOMOS-Korea.
- _____ (ed.) (Dec. 2004) *World Cultural Heritage Koguryo Tomb Murals*, Seoul: ICOMOS-Korea &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 Kim, Yong-sop (2010) *The Transformations of Korean Civilization in East Asian History*(원저: 『동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 문명의 전환』),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Park, Ah-Rim (2002), *Tomb of the Dancers, Koguryo Art in East Asian Funerary Art*, PhD dissertation, U of Pennsylvania.
- _____ (2004) ‘The Case Study of Late Koguryo Tombs in Ji’an: the Course of the Divergence from the Tradition of Genre Paintings and the Invention of a New Pictorial Scheme,’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2(1), Seoul: Koguryo Research Foundation.
- Steinhardt, Nancy Shatzman (2002), ‘Changchuan Tomb No.1 and Its North Asian Context,’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4(1-4): 225-292.
- The Management Bureau for Cultural Property Conserv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mplex of Koguryo Tombs,’ World Heritage Nomination.
- The 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World Heritage Nomination.
- UNESCO, ‘Preservation of the Koguryo Kingdom Tomb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http://www.aks.ac.kr/glossary/>.

[Abstract]

Goguryeo Tombs: Translation of the Names and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Chinese Romanization

Park, Hyun-ju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aise the issue of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ranslating materials dealing with cultural heritage via the example of Romanization of the names of tombs of the ancient Goguryeo Kingdom (?-668) of Korea.

The paper begins with a short introduction to the ancient Goguryeo mural tombs currently located in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ncluding their significance in Korean history an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hen, the paper looks into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using the Chinese Romanization scheme in translating the names of Goguryeo tombs: the reader may be led to perceive the Korean heritage as belonging to China, which is in line with China's ongoing efforts to integrate the history of its neighbors into its own.

The article then proceeds to examine how the names of two particular Goguryeo tombs (Jangcheon and Tonggu) have been translated (i.e. Romanized) and whether any materials produced by Korean government agencies are using the Chinese Romanization scheme.

The final section examines web-based databases (e.g. dictionary and thesaurus)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as translation aids, and suggests improvements that will lead the user to Romanize the names of Goguryeo tombs following the Korean Romanization system rather than the Chinese one.

▶ Key Words: Goguryeo tombs, Romanization, geopolitical implications, UNESCO World Heritage, Jangcheon, Tonggu

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beakey72@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재 분야 번역, 한국학, 번역과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